

## בֵּית סֵפֶר (책의 집)

###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싹틔우면  
삼십 명 육십 명 백 명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삼십 개 육십 개 백 개의 씨앗으로 다시 생명을 퍼트려 갑니다.

삼십 명 중에 한 명 육십 명 중에 한 명  
혹은 백 명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생명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 나간다면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 땅에 퍼져 나갈 거예요.

씨앗이 움트는 것은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암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향존직 공부 및 독서모임: 낮 12시 30분, 소예배실 및 로뎀
3. 결혼 예식: 김유중 · 유미경 집사님 아들 김덕호 군과 김해지 양  
31일(토)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드메르웨당홀
4. 다음 주일은 '이삭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5.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스승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봅시다.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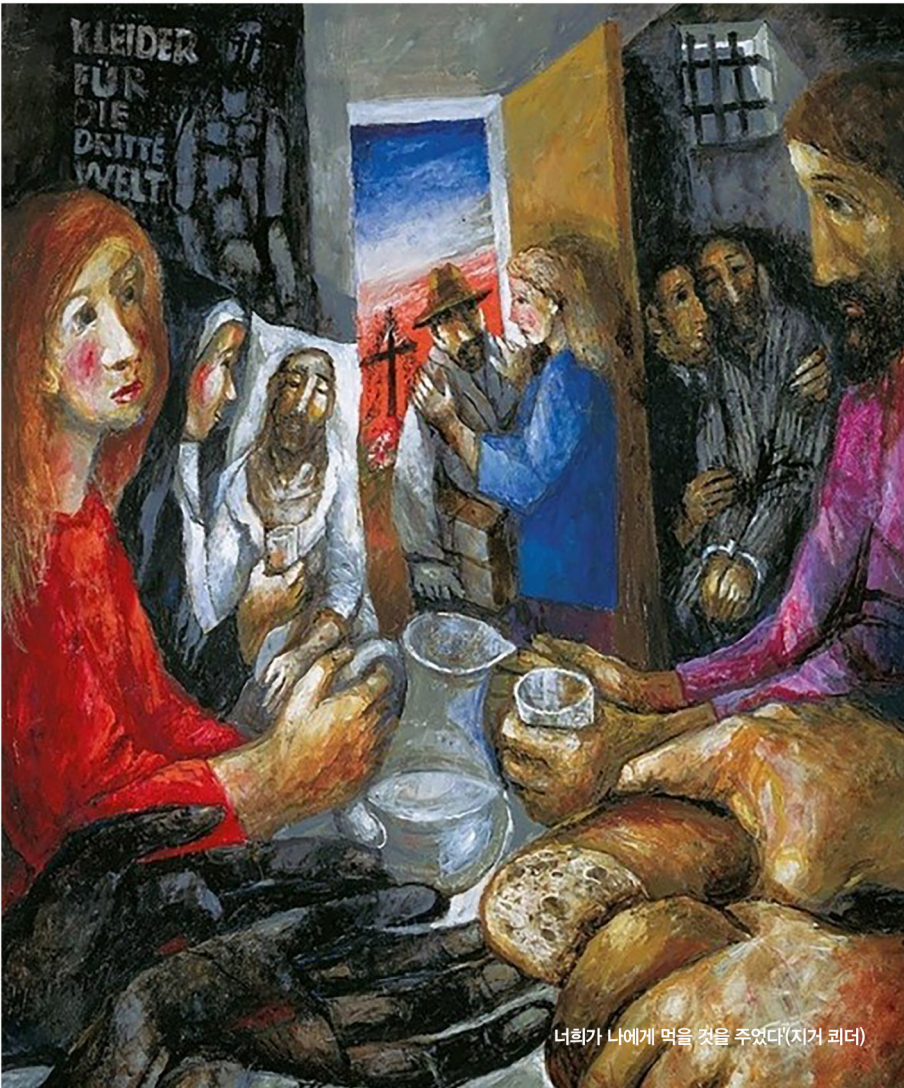
| 구 분  | 시 간       | 장 소     | 선교회   | 연 령       |
|--|-----------|---------|-------|-----------|
| 주일낮예배  | 오 전 11 시  | 본 당     | 아브라함  | 남 성 교 우   |
| 수요기도회  | 오 후 7 시   | 소 예 배 실 | 에 스 더 | 61-70세 여성 |
| 새벽기도회(화-금)                                     | 오전 5시 30분 | 소 예 배 실 | 드 보 라 | 51-60세 여성 |
| 아동부예배  | 오 전 9 시   | 소 예 배 실 | 마 리 아 | 41-50세 여성 |
| 청소년부예배   | 오 전 9 시   | 청소년부실   | 한 나   | 40세까지 여성  |
|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           |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쿼더)

제51권 21호

2025년 5월 25일(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            |                        |
|------------|------------------------|
| 주일 오전 11시  | 인도 : 송 혁 목사            |
| 경배와 찬양     | 함 께                    |
| * 입 레 송    | 주 찬양                   |
| * 예배의 부름   | 시편 135:1-3             |
| * 송영과 기원   | 반주, 인도자                |
| * 영 광 송    | 75장(3절 후, 간주)          |
| 함께 드리는 기도  | 함 께                    |
| 참회의 침묵기도   | 함 께                    |
| 위로와 용서의 말씀 | 인 도 자                  |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 성 시 교 독    | 시편 67편(성서일과표를 보며)      |
| 감 사 찬 송    | 380장(2절 후, 간주)         |
| 기 도        | 김병곤 장로                 |
| *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4:25-27(신약 173쪽) |
| 찬 양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 말 씀 선 포    |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
| 결단의 찬송과 기도 | 490장(2절 후, 간주)         |
| 봉 헌        | 함 께                    |
| 성도의 교제     | 함 께                    |
| * 교제의 찬양   | 382장(2절)               |
| * 축 도      | 송 혁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장세중 장로

- \* 6월 안내위원 : 김보엽, 최형단, 김명숙, 유미경
- \* 6월 헌금위원 : 이항재
- \* 6월 주방봉사 : 4, 8구역

생명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게되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요한복음 14:25-27/메시지서서)

나 눔 주 일

|            |         |
|------------|---------|
| 오후 12시 30분 |         |
| 향존직 공부     | 소 예 배 실 |
| 독서 모임      | 로 템     |

수 요 기 도 회

|          |                      |
|----------|----------------------|
| 오후 7시    | 인도 : 이기도 목사          |
| 찬 양      | 함 께                  |
| 기 도      | 이희자 권사               |
| 성 경 봉 독  | 빌립보서 2:1-11(신약 318쪽) |
| 말씀선포와 기도 | 이 마음을 품으라            |
| 축 도      | 이기도 목사               |

다음 주 기도 - 김종순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 날짜(요일) | 목상 본문        | 29일(목) | 빌립보서 3:12-21 |
|--------|--------------|--------|--------------|
| 26일(월) | 빌립보서 2:5-18  | 30일(금) | 빌립보서 4:1-9   |
| 27일(화) | 빌립보서 2:19-30 | 31일(토) | 빌립보서 4:10-23 |
| 28일(수) | 빌립보서 3:1-11  | 1일(주일) | 역대상 1:1-54   |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어린 자녀들아!

(요한복음 13:31-35)

[성서일과표/사도행전 11.1-18, 시편 148:1-14, 요한계시록 21.1-6, 요한복음 13:31-35]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 혹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땅이 아닌 하늘 높은 곳에서 복음의 신비를 환히 내려다보고 쓴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13-16장은 이른바 예수의 고별 설교(Farewell Discourses)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떠난 이후의 상황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인인데, 왜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어린아이의 지소형(指小形), 즉 사랑스러운 표현을 강조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은 ‘작은 자들’, 새번역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공동번역은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식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맥을 보면 공동번역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유대인들은 스승을 아버지, 제자를 아들 이라고 부르니까요. 초기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교의 소수 종파로 시작하였습 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글자 그대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어린 자녀들’이라는 호칭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예수의 마음과 더불어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리적 공간으로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 이라고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랍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드린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 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한자인 인간과 하나님이나 다를까 어울려 함께하게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혹시 불경하게 들리시나요?

개혁교회의 뿌리는 가톨릭이고, 가톨릭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초기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기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경전을 그대로 구약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는 본디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안의 신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한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한다는 의미지요.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인간의 신적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만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가 정치, 경제, 군사, 의학, 예술 등 모든 분야의 뛰어난 성취로 입증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중세 천 년 동안 교황과 교리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시절을 잃어버린 천 년 혹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가톨릭 신자는 성직자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 없고, 죄를 고백하려 해도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톨릭은 인간의 제한성과 죄성에 집중하는 정반대의 길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한성에 집중하다 보니 성서도 성직도 학문도 고위 종교인만 독점하게 되었지요.

이런 암흑시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세상은 르네상스를 통해 근대를 깨웠고, 일단의 가톨릭 교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몸담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이른바 ‘만인 대제사장’ 설이지요. 그런 면에서 개혁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요한 공동체가 추구한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한 힌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하나님과의 하나 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 말이지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한성 속 에서도 하나님의 신성, 즉 우리 안의 창조적 능력에 집중하며 죄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라고 불러 주실 것입니다. 살롱.